

공간재구조화사업 우수시설학교 선정

초 3교, 중 1교, 고 2교 총 6교 확정, 미래형 공간조성 기반 갖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공간재구조화사업 우수시설학교 심사를 통해 최우수시설 학교 2교, 우수시설 학교 4교를 선정했다.

공간재구조화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을 보유한 학교를 대상으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학교를 친환경·디지털 기반 첨단 공간으로 변화시켜 다양한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교육청은 공간재구조화 우수시설 학교에 대한 선정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1년간 준공한 43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후 내외부 교육시설 전문가들이 서류심사,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해 개축과 리모델링 분야에서 각각 최우수시설 학교 2교, 우수시설 학교 4교 총 6교

를 최종 선정했다.

개축 분야 최우수시설 학교로 선정된 포천 화현초등학교는 노후화된 기존 2, 3호동을 철거하고 1호동을 증축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공간을 구성했다. 특히 도서관과 돌봄교실을 쉽게 닫고 열 수 있는 접이식 문으로 연계해 학습과 돌봄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점이 돋보인다.

리모델링 분야 최우수시설 학교로 선정된 고양 덕양중학교는 교내 중심부에 실내형 광장을 조성해 학습·공연·전시가 가능한 다목적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특별실을 접이식 문과 평상으로 구성, 외부와의 연결성을 강화해 열린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도교육청은 공간재구조화 사업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해 교수학습과 연계한 미래교육 공간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우수시설로 선정된 학교의 누리집 홍보와 함께 관련 자료도 제작해 공간재구조화 역량 강화 연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예정인 사업 대상 학교들이 사용자 중심의 미래교육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송민수 기자

30년 이상 노후 열수송관 파열 재발 막는다

안양시가 노후한 열수송관 파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추진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안양 범계역 인근에서 노후한 GS파워의 열수송관이 파열돼 수증기가 새어 나오는 일이 발생했고, 밤샘 복구 작업을 통해 중단됐던 열 공급이 사흘 만인 29일 재개된 바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안양군포 지역 5만 세대 이상의 시민이 난방온수가 공급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시는 배관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GS파워로 하여금 ▲열수송관 이원화 사업 신속 완료 ▲노후 열수송관 안전진단 강화 ▲상시 누수점검 강화 등을 하도록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열수송관 파열 사고는 안양 뿐만 아

니라 열공급망 구축이 오래된 다른 도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30년 이상 노후한 온수관에 대해 11월 중 GS파워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 추진,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것”이라며 “30년이 넘는 평촌 신도시의 정비사업과 병행 추진해 노후한 기반시설의 내구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계역 인근의 도로를 복구 공사하고 인근에 뉴코아아울렛에서 희망공원 사거리 방향의 1개 차선만 통행했으나, 31일 오전 10시경부터는 양방향 차선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공사 현장이 완전히 복구돼 도로가 전면 개통되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더 소요될 예정이다.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교육

안성시는 지난 29일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80여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법적 책임과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노무사를 초청해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임금·근로시간 관리, 무단이탈 대응 절차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고용주의 법적 의

무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안성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전문가인 노무사를 초청해 실무 중심 교육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병행했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성남시, 여성 안심귀갓길 213곳 표창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사업으로 제10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공동체 안전망 구축 분야 경찰청장 표창(우수상)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경찰청 등이 범죄예방 정책과 활동 등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 주는 상이다.

성남시가 표창받은 ‘여성 안심귀갓길’은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과 50개 동, 경찰서가 협업체 지경하는 곳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총 213곳 골목길에 조성됐다.

해당 지역엔 △바닥 매립형 태양광(LED) 조명인 도로표지형 △가로등 설

치가 어려운 곳에서 조명 역할을 하는 태양광 벽부등 △위급 상황 시 112신고를 안내하는 태양광 표지판 △현 위치, 관찰 경찰서 등의 정보를 포함한 내용을 바닥에 비추는 안심 귀갓길 로고젝터 등의 안전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

이들 시설이 설치된 곳은 밤길을 밝히 오가는 시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불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시청 8층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센터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총 47명), 관내 경찰서와 함께 민·관·경 협력 체제를 구축한 상태다.

송민수 기자

경기도동계체육대회 20년 만의 귀환… 새 도약 신호탄

빙상·컬링·아이스하키 3개 종목 671명 참가…경기도 동계스포츠 부흥의 출발점

이원성 회장 “동계올림픽 유치 밀거름 될 것..경기도 체육 새 이정표”

‘2025 경기도동계체육대회(이하 동계체전)’가 20년 만에 부활하며 의정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의정부실내빙상장, 의정부컬링경기장, 태릉국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렸으며, 컬링·빙상·아이스하키 등 3개 종목에서 열띤 경기가 펼쳐졌다.

동계체전은 중단됐던 도 단위 동계종합대회를 재개한 첫 행사로, 경기도체육회(회장 이원성)가 주최하고 각 종목별 연맹이 주관했다.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빙상 경기는 국제대회 수준의 시설을 갖춘 가운데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으며, 의정부 실내빙상장의 아이스하키 역시 세계적 수준의 링크에서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였다. 반면, 컬링 경기장의 관람석 및 부대시설 부족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해 대회는 시범경기로 운영되며, 총 671명(선수 513명, 지도자 158명)이 참가했다. 초·중·고 학생부터 동호인 선수까지 폭넓은 계층



이 참여해 내년 전국동계체육대회는 물론, 향후 국제무대에 도전할 유망주들의 기량을 점검하는 무대가 됐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20년 만에 도 단위 동계종합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경기도 동계스포츠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유망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 당당히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수 기자

“수원이 뷰티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25 뷰티섬 수원’, 10월 31일~11월 2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모든 순간의 아름다움을 더하다’를 슬로건으로 한 ‘2025 뷰티섬 수원’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시·(재)수원컨벤션센터·(주)메세이상이 주관한 2025 뷰티섬 수원(BeautySum Korea Suwon 2025)은 뷰티 분야 제품 전시와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으로 기업이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관람객에게는 최신 뷰티 트렌드와 브랜드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박람회다.

기업과 기관·단체에서 250여 개 부스를 운영했다.

10월 31일 열린 개막식에 함께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이 뷰티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뷰티·헬스 산업은 수원시,



나아가 우리나라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 기업들은 화장품, 헤어·네일·바디·향수·에스테틱(피부관리)·이너뷰티 제품 등을 전시·판매했다.

송민수 기자

예술의 향연, ‘제18회 남양주 예술제’ 시민과 함께 빛나다

남양주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만든 문화예술 교류의 장



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둘러보며 지역 예술인들을 격려했다.

주 시장은 “남양주예술제는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라며 “예술이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이와 가족 방문객들에게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광덕 시장은 시민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대형 유통사 입점 프로그램, 산업세미나,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송민수 기자

해의 바이어 수출상담회, 대형 유통사 입점 프로그램, 산업세미나,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군포시,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예방관리 교육

군포시보건소는 감염취약시설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고 시설 종사자의 감염관리 인식 제고 및 상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월28일(화) 14시부터 16시까지 군포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지하1층)에서 감염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주·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43명이 참석했으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감염관리실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손 위생과 보호구 착·탈의, 의료기구 소독 및 환경관리, 주요 감염성 질환(다제내성균, 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리시, 2025년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실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10월 29일 구리시보건소 대강당에서 ‘2025년 구리시 생물테러 대비·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구리시보건소를 중심으로 수도권 질병대응센터, 구리경찰서, 구리소방서, 구리시 안전총괄과 등 4개 기관 40여 명이 참여해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 구리 빛 축제’ 장소인 구리시 장자호수공원 현장을 배경으로 탄저균 살포 가상 상황을 설정해 ▲의심 신고 및 상황 전파 ▲초동대응팀 출동·현장 통제 ▲개인 보호복 착의·탈의 ▲다중탐지 키트 검사·검체 채취 ▲노출자 제독·의료이송 ▲언론보고회 등 지침에 따른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참가 기관들은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숙지하며 실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

과천시, 전 직원 대상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과천시는 지난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령의무교육으로, 폭력 없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 존중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이 진행했다. 김 소장은 ‘국제엔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으로, 다양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폭력 예방 및 성평등 교육을 진행해 온 전문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참여와 소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 소장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가정 내 언어습관 점검’, ‘평등한 관계 맺기 실습’, ‘권력의 구조를 되짚는 밸런스 게임’ 등의 활동을 통해 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성평등 감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 내달 6일 킨텍스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고양특례시는 다음 달 6일 오후 2시 킨텍스에서 2025 고양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박람회는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과 중장년 구직자 간 효율적 일자리 매칭과 함께 구직자의 수요 충족을 위해 채용관, 취·창업 컨설팅관, AI·디지털 특화관, 일자리 정보관, 기업 라운지, 힐링·체험관 등 모두 6개 테마관을 운영한다.

채용관에서는 반도체, 의료바이오, 식품 제조, 물류·운수, 방송·전시기획 분야 35개 기업에서 149명의 채용을 위한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디자이너, 회계, 사회복지사, 헤드헌터, 전시 기획 등 중장년 구직자가 전문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직종부터 운전, 배송, 조리, 생산, 요양보호 등 유연한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는 직종까지 구인·구직이 이뤄질 예정이다.